

## 창조에 나타난 구원신앙

-시편 8편과 욥기 38-41장의 비교연구<sup>1)</sup>-

안근조\*

### 1. 들어가는 말

본 논문은 시편 8편과 욥기 38-41장을 비교 연구하여 두 본문의 구원신앙이 지혜문학의 창조전승에 기반하고 있음을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하여 구약성서신학의 구원과 창조의 관계성을 새롭게 규명하는데 공헌하고자 한다.<sup>2)</sup> 폰 라드(G. von Rad) 이래 구속사(Heilsgeschichte) 중심의 신학적 관점에서 창조는 그 자체의 독립적 목소리를 내기 보다는 구원신앙에 종속 내지는 봉사하는 주제에 불과했다.<sup>3)</sup> 그러나 폰 라드의 종속적 창조론에 대한 논문이 1936년에 발표된 후 40년이 못되어 베스터만(Claus Westermann)과 슈미트(H. H. Schmid)에 의해 번두리로 밀려났던 창조신학이 다시금 주목을 받게 된다.<sup>4)</sup> 베스터만은 구약성서의 창조에 대한 담론이

---

\* 호서대학교 부교수, 구약학

- 1) 이 논문은 2021년도 호서대학교의 재원으로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20200827).
- 2) 20세기까지 창조신학과 구원신학의 관계성에 대한 학자들의 논의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하라: 노세영, “창조와 구속의 관계성에 대한 이해,” 『구약논단』 11 (2001), 7-25.
- 3) Gerhard von Rad, “The Theological Problem of the Old Testament Doctrine of Creation,” *The Problem of the Hexateuch and Other Essays* (Oliver & Boyd, 1966), 131-143.
- 4) Claus Westermann, “Biblical Reflection on Creator-Creation” (original publication in German, 1971), B. W. Anderson, ed., *Creation in the Old Testament*,

역사에 대조되는 신화에 불과한 것으로 “비역사적”이라고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우주 기원에 대한 이야기 자체가 생존을 위협하는 현실세계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이해의 산물이기 때문이다.<sup>5)</sup>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구속한 역사적 하나님의 구원은 세계의 시작과 종말에 대한 근본적 목상이 담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서 비로소 보편성과 더불어 독특성을 확보하게 된다고 보았다.<sup>6)</sup> 슈미트는 한 발 더 나아가 구약성서신학에 있어서 창조는 그 어떤 다른 개념에 비하여 가장 포괄적이고 핵심적인 틀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약성서의 율법서, 예언서, 지혜서에서 공히 강조되는 “의로움”(צדק)은 하나님의 창조세계에 드러난 질서이며 이 의로움은 좁은 의미에서 법적인 용어나 인과응보 이론에 그치지 않고 온전한 구원(*Heil*)의 의미로서의 보편적 세계질서를 일컫는다고 보았다.<sup>7)</sup> 이스라엘의 구원사는 하나님의 창조질서가 인간의 삶과 역사 속에 각각 어떻게 펼쳐지는가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구약성서의 중심신앙의 기반이 역사적 구속사가 아닌 세계 질서의 창조와 유지라는 창조신학에 정초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sup>8)</sup> 이후 창조신학의 중요성은 20세기 말에서 21세기에 이르러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지지를 받아왔다.<sup>9)</sup>

---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4), 90-101; H. H. Schmid, “Creation, Righteousness, and Salvation” (original publication in German, “Schöpfung, Gerechtigkeit, und Heil,” *ZThk* 70 [1973], 1-19), B. W. Anderson, ed., *Creation in the Old Testament*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4), 102-117.

5) Claus Westermann, “Biblical Reflection on Creator-Creation,” 99.

6) Claus Westermann, “Biblical Reflection on Creator-Creation,” 101.

7) H. H. Schmid, “Creation, Righteousness, and Salvation,” 107.

8) H. H. Schmid, “Creation, Righteousness, and Salvation,” 111.

9) Rolf P. Knierim, *The Task of Old Testament Theology: Substance, Method, and Cases* (Grand Rapids: Eerdmans, 1995); James Barr, *Biblical Faith and Natural Theology* (Oxford: Clarendon, 1993); Leo G. Perdue, *Wisdom and Creation: The Theology of Wisdom Literature* (Nashville: Abingdon, 1994); William P. Brown, *The Ethos of the Cosmos: The Genesis of Moral Imagination in the Bible* (Grand Rapids: Eerdmans, 1999); Norman C. Habel, *Readings from the Perspective of Earth*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2000); Terence E. Fretheim, *God and World in the Old Testament: A Relational Theology of Creation* (Nashville:

베스터만과 슈미트의 타당한 논점에도 불구하고 구약학 연구에서 창조에 대한 관심은 고대근동문화의 보편적인 현상이었던 창조신화를 배경으로 동 반하기 때문에 창조신앙이 이스라엘의 ‘고유한’ 신앙고백으로 인정될 수 있는 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물론, 베스터만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모든 문화의 전제이기에 이러한 문제를 감안한 채, 여전히 이스라엘의 독특한 신앙의 요소를 발견할 수 있음을 강변한다.<sup>10)</sup> 슈미트 역시 거시적 근동세계의 보편적 문화로부터 미시적 이스라엘의 독특한 구원개념을 논의 할 수 있다고 변호하고 있다.<sup>11)</sup> 그러나, 폰 라드가 신명기 26장 5절 이하의 소위 “소역사신조”와 같은 본문에서 구원신앙의 뿌리를 명시했듯이,<sup>12)</sup> 창조 신앙의 근간을 밝히는 본문의 제시와 체계적 해석이 요청된다. 이에, 나는 이곳에서 시편 8편과 욥기 38-41장을 창조 중심의 구원신앙을 고백하는 주요 본문들로 제시하고자 한다. 시편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창조시인 시편 8편은 정경비평적으로 구원을 간구하는 탄원시편들(시 3-7) 다음에 위치함으로써 구원론적 맥락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또한 욥기 38-41장은 창조세계의 묘사로 가득한 하나님의 폭풍우발언을 통해서 욥의 구원경험을 이끌어내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많은 학자들은 시편 8편의 인간에 대한 물음(מַה אֲדָמָה)이 욥기 7장 17절에서 등장하는데 관심을 가져왔다.<sup>13)</sup> 그러나 궁극적으로 시편시인과 욥의 인간에 대한 질문의 응답은 야웨의 폭풍우연

Abingdon, 2005).

10) Claus Westermann, “Biblical Reflection on Creator-Creation,” 93.

11) H. H. Schmid, “Creation, Righteousness, and Salvation,” 111.

12) Gerhard von Rad, “The Form-Critical Problem of the Hexateuch,” *The Problem of the Hexateuch and Other Essays* (Oliver & Boyd, 1966), 3-8.

13) D. J. A. Clines, *Job* (Nashville: Thomas Nelson, 1989), 192-193; Katharine J. Dell, *The Book of Job as Sceptical Literature* (Berlin: Gruyter, 1991), 125-136; R. C. Van Leeuwen, “Psalm 8.5 and Job 7.17-18: A Mistaken Scholarly Commonplace?,” P. M. Michèle Daviau, John W. Wevers and Michael Weigel, eds., *The World of Aramaeans, I: Biblical Studies in Honor of Paul-Eugène Dion*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2001), 206; 권지성, 『특강 욥기: 고통, 정의, 아름다움에 관한 신의 드라마』 (서울: IVP, 2019), 107-108.

설(욥 38-41)에서 주어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더군다나, 시편 8편과 욥기 38-41장은 공히 창세기 1장의 창조 내러티브와 관련하여 항상 논의되고 있다.<sup>14)</sup> 따라서 이곳에서는 두 본문 간 비교연구를 통해 시편과 욥기가 각각 다른 시가전통과 지혜전통에서 유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창조신앙적 관점에서 상호 긴밀한 전승사적 연계성을 가지고 있음을 밝히고 이를 가능케 했던 것이 이스라엘 지혜전승의 창조개념에 나타난 구원신앙임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 2. 독립적 창조론의 걸림돌 이슈들

본격적인 본문의 연구와 해석에 들어가기 전에 종전의 구약신학 토론에서 창조와 구원의 관계를 논의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점들을 밝히고 그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연구의 방향성을 제공하려 한다. 프레타임(Terence E. Fretheim)은 그동안 창조의 위치를 축소시켰던 요소들을 다음의 11가지로 명쾌하게 밝혔다.<sup>15)</sup>

1. 구속사 중심의 관점
2. 고대근동문화의 우주론 배경에 기반한 자연종교적 창조이해
3. 자연에 대한 이해를 과학자들의 영역으로 간주
4. 하나님의 일상적 삶의 관여를 가로막는 신학적 관점들(이신론으로부터 과격한 절대 주권론에 이르기까지)
5. 모든 실체의 의미를 인간 현실의 상황으로부터 파악하는 실존주의
6. 인간 이외의 존재를 간과하는 인간해방의 정치신학

14) Peter C. Craigie, *Psalms 1-50* (Waco: Word, 1983), 108; J. Clinton McCann, Jr., *The Book of Psalms* (Nashville: Abingdon, 1996), 712; 왕대일, “하늘을 다스리는 질서가 무엇인지 아느냐?”(욥 38:33a): 창세기 창조신앙에 대한 지혜문학의 반성: 욥기 38-41장을 중심으로, 「Canon&Culture」 7 (2013), 103-104.

15) Terence E. Fretheim, *God and World*, ix-x.

7. 설교와 성례의 강조가 인간구원으로만 치우친 말씀신학
8. 영성의 물질적이고 현실적 성격을 무시하는 일방적인 영적 삶 또는 저 세상에 대한 강조
9. 현실역사의 관심과 동떨어진 종말에 대한 이단적 사설들
10. 교회론 중심의 성경이해에 따른 구약성서의 비중 약화
11. 창조와 복의 여성적 신 이해에 둔감한 전능한 하나님에 대한 남성적 이해 중심의 성서해석

위의 문제들을 성서학 분야의 범주별로 요약하면, 역사적인 문제, 문학적 문제, 신학적인 문제로 분류할 수 있다. 즉, 1번에서 3번까지는 역사적 연구의 산물이며, 4번에서 10번까지의 요소들은 신학적인 문제이며,<sup>16)</sup> 11번의 요소가 문학적 문제라 할 수 있다. 성서해석에 있어서 역사와 문학 그리고 신학이 모두 관계하지만 오늘날 문학비평적인 성서해석학이 대두되면서 실제적인 분석의 대상은 본문의 구조(text)와 더불어 독자(reader)의 문제에 집중한다. 프레타임이 11번 항을 통해서 제기하는 문제는 기존의 남성 중심적 본문 이해에 대한 반성이다. 만군의 하나님의 역사적 구속행위와 승리에 대한 강조가 일상의 삶에 스며든 하나님의 먹이고 살리는 모성적인 창조주의 본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폰 라드가 창조는 구원을 감싸는(foil) 장엄한 은혜라고 언급할 때<sup>17)</sup> 창조신학적 개념을 염두에 두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폰 라드는 구원신앙에 치중한 나머지 창조에 관계된 본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독자들의 이해를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했다.<sup>18)</sup> 단지, 창조는 구속사적 증언의 토대 또는 구원신앙을 강조하는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주장하는데 그친다.

16) 8번과 10번 항은 신학적인 문제이기 보다는 각각 천국론과 교회론에 근거한 교리적인 문제에 관련된다. 그러나 여전히 교리자체는 신학적인 영역에서 논의 될 수 있다.

17) Gerhard von Rad, "The Theological Problem of the Old Testament Doctrine of Creation," 134.

18) Gerhard von Rad, "The Theological Problem of the Old Testament Doctrine of Creation," 131.

이 지점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다. 성서해석학의 편향된 전제를 제거하고 있는 그대로의 본문의 문학적 배치와 전개를 점검하려는 것이다. 시편 8편은 구원경험을 통한 창조섭리의 깨달음인 반면, 욥기의 하나님 연설은 창조질서를 통한 구원경험이다. 그러나 이러한 창조신앙의 본래적 의의를 발견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창조개념의 외래 유입에 대한 역사비평적인 견해이다. 이스라엘의 전통적 신앙에서는 보편적 창조개념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보고 후대의 전승인 지혜문학에서야 비로소 발현되는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은 견해는 구약성서 본문의 ‘창조’ 개념에 대한 두 가지 잘못된 전제에서 연유한다. 첫째, 종교사학파들의 “절대적 시작”으로서의 창조 개념을 그대로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sup>19)</sup> 그러나 최근 들어 주석가들은 ‘창조’는 태초의 “무로부터의 창조”에 대한 이해보다는 “계속된 창조”(creatio continua)의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sup>20)</sup> 왜냐하면, 고대 이스라엘의 8세기 예언자들과 시편가자들에 의해 강조된 창조의 개념은 현실의 역사를 뚫고 들어오는 계속된 새창조의 개념이기 때문이다.<sup>21)</sup> 둘째, 역사비평적 창조이해의 오류는 창조 개념을 항상 ‘혼돈과의 싸움’(Chaoskampf)이라는 신화적 모티프에서 해석해 왔다는 점이다. 자연스레 다신교적 이방문화의 흔적이 창조를 이스라엘의 고유한 신앙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게 했던 것이다. 이에 대한 교정은 폰 라드의 공헌이다. 그는 창조와 관련된 시편의 본문들과 제 2 이사야에 대한 이해가 혼돈과의 싸움이라는 신화적 모티프와는 관련 없음을 증명하면서<sup>22)</sup> 이스라엘의 창조신앙의 기원은 지혜문학에 있음을 지

19) Dennis J. McCarthy, “‘Creation’ Motifs in Ancient Hebrew Poetry,” B. W. Anderson, ed., *Creation in the Old Testament*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4), 79.

20) Francis Watson, *Text and Truth: Redefining Biblical Theology* (Grand Rapids: Eerdmans, 1997), 262; Philip Clayton, “Emerging God: Theology for a Complex Universe,” *The Christian Century* 121 (2004), 26-30; Terence E. Fretheim, *God and World*, 5.

21) Stefan Paas, *Creation and Judgment: Creation Texts in Some Eighth Century Prophets* (Leiden: Brill, 2003), 55-107; Walter Brueggemann, *Theology of the Old Testament: Testimony, Dispute, Advocacy* (Minneapolis: Fortress, 1997), 146-149.

적하였다.<sup>23)</sup> 구약성서의 창조이해가 신화적 배경이 아닌 지혜전승의 맥락에서 연구되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성서본문의 해석은 역사비평방법론의 해석학적 전제들에 의해 채색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구약성서의 ‘창조’ 개념과 관련하여 올렌버거(Ben C. Ollenberger)는 구약성서의 창조에 대한 본문 이해를 위해서는 창조에 대한 어떤 선입관을 배제한 채 본문 자체의 쓰임과 맥락에서 해석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sup>24)</sup> 아래의 시편 8편과 욥기 38-41장의 비교문학 연구는 창조와 구원의 관계를 논의하는데 걸림돌이 되었던 전제들을 무효화시키고 철저하게 문학비평적 구조분석과 본문이해를 통해 드러나는 해석학적 의미 발견에 천착하고자 한다.

### 3. 시 8편과 욥기 38-41장의 비교연구

#### 3.1. 본문구조

시편 8편의 문학구조는 인간의 고통스런 현실에서 만난 구원경험이 창조세계의 발견과 찬양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시 8편의 구조 I>

1<sup>25)</sup> 표제어

2 공동찬양

22) Gerhard von Rad, “The Theological Problem of the Old Testament Doctrine of Creation,” 133-139.

23) Gerhard von Rad, “The Theological Problem of the Old Testament Doctrine of Creation,” 140-141.

24) Ben C. Ollenberger, “Isaiah’s Creation Theology,” *ExAud* 3 (1987), 60.

25) 절수표기는 MT의 히브리어 본문을 따른다. 아래에서 필요시 한글성경의 절수는 [ ]로 표기한다.

- 3 원수들과 보복자들부터의 구원
- 4 구원을 통한 발견 1: 하늘과 달과 별들
- 5 구원을 통한 발견 2: 인간과 하나님
- 6-9 구원을 통한 발견 3: 인간의 청지기적 사명
- 10 공동찬양

크라우스(H-J Kraus) 역시 시편 8편의 찬양을 가능케 하는 것은 시인의 구원경험이었다고 본다.<sup>26)</sup> 위의 구조가 보여주듯이 원수로 둘러싸인 현실의 삶으로부터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승리한 경험이 창조세계(4)와 하나님과의 관계성(5)과 인간의 사명(6-9)을 발견하도록 이끌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다. 그런데 기존의 구속사적 인간이해는 5[4]절에서 하나님의 기억과 (זכר) 돌봄(קפא)의 은혜의 고백을 인간의 죄성 또는 연약함의 관점에서 해석한다. 따라서 본문 6-9[5-8]절의 인간의 청지기적 사명 발견이라는 창조 명령이 상대적으로 약화된다. 도리어 만물의 중심으로서의 인간의 놀라운 발견(5)과 신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의 위치(6)를 애써 외면한다. 게다가 “여호와 우리 주여”(יהוה אלהינו)로 시작하고 끝나는(2, 10) 신중심적 열개에 집중 한 나머지<sup>27)</sup> 하나님의 창조세계 속에 발굴되고 발휘되어야 할 인간의 “치리”(נִשְׁלָ; 7[6]) 사명은 묻혀 버린다. 지나친 구속사적 관점이 본문에서 엄연하게 펼쳐지는 창조세계에 대한 이해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아래의 본문에 대한 새로운 구조 분석은 시편 8편에 펼쳐지는 인간존재의 창조사적 이해를 드러낸다.

#### <시 8편의 구조 II>

##### 1 표제어

26) H.-J. Kraus, *Psalms 1-59: A Commentary*. tr. Hilton C. Oswald (Minneapolis: Augsburg Publishing House, 1988), 185.

27) Artur Weiser, *The Psalms: A Commentary*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2), 140; Walter Brueggemann, 『부르그만의 시편사색』 조호진 역 (서울: 솔로몬, 2007), 65-66.

|     |                                               |            |
|-----|-----------------------------------------------|------------|
| 2   | 공동찬양                                          | A(땅)-B(하늘) |
| 2aα | 호칭                                            |            |
| 2aβ | 그 땅(הָאָרֶץ)에 충만한 하나님의 위엄                     | a          |
| 2b  | 그 하늘(הַשָּׁמַיִם)에 충만한 하나님의 위엄 <sup>28)</sup> | b          |
| 3   | 찬양의 이유: 그 땅의 구원                               | a'         |
| 4   | 찬양의 이유: 그 하늘의 창조                              | b'         |
| 5   | 인간의 발견: 인성                                    | a''        |
| 6-7 | 인간의 발견: 신성                                    | b''        |
| 8   | 땅의 동물들                                        | a'''       |
| 9   | 하늘의 새와 바다 생물들 <sup>29)</sup>                  | b'''       |
| 10  | 공동찬양: 땅                                       | A(땅)       |

가장 주목할 만한 본문의 특징은 땅의 역사와 하늘의 창조섭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교대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2절에서 “온 땅과”(בְּכָל־הָאָרֶץ; A) “하늘에”(עַל־הַשָּׁמַיִם; B) 충만한 하나님의 위엄을 공동찬양에서 선포한 이후 줄곧 땅에서의 원수들로부터의 구원(a')과 하늘의 빛들의 창조(b'), 인간

28) 주석가들은 2aβ와 2b를 내용상 감탄과 직접적 찬양으로 분리한다(특히, Erhard S. Gerstenberger, *Psalms Part 1 with an Introduction to Cultic Poetry* [Grand Rapids: Eerdmans, 1988], 67); cf. Peter C. Craigie, *Psalms 1-50*, 104; H-J Kraus, *Psalms 1-59*, 178. 해당학자들은 2b의 אֲשֶׁר חֲנָה (“당신이 주기로 명하신”[직역])의 구문론상 어려움으로 인해 MT 단어의 재모음화(revocalization) 또는 교정(emendation)을 시도한다. 그러나 본문의 구조상 MT의 2절은 “그 땅”과 “그 하늘” 곧 구원을 경험한 시인이 발견한 “땅과 하늘”에 가득한 창조주의 위엄을 병렬적으로 노래하는 완벽한 하나의 문학적 구조를 갖추고 있다. 알터(Robert Alter)의 번역은 이를 뒷받침 한다: Robert Alter, *The Book of Psalms: A Translation with Commentary*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2007), 22. 알터는 명령형 tenah (to give)를 수동형인 tunah (was told)로 수정하여 평행법에 준하는 대구로 본문을 읽고 있다:

how majestic Your name in all the earth!

Whose splendor was told over the heavens.

29) 바다의 고기들과 바닷길로 다니는 것들(יָמִים עֲבַר אֲרָחוֹת וּדְגֵי הַיָּם)은 “모든 생명체”를 포괄하려는 지혜전승의 백과사전적 지식에 의존하고 있다 (Erhard S. Gerstenberger, *Psalms Part 1*, 70). 이곳에서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바닷길”에 대한 묘사는 하늘의 영역과 같은 신적인 창조영역을 의미한다. cf. Peter C. Craigie, *Psalms 1-50*, 108-109.

에 대한 흙의 연약성(a”)과 신과 같은 통치권(b”), 땅의 짐승들(a”)과 하늘과 바다의 생물들(b”)이 교체되어 나온다. 시편 8편은 땅과 하늘이 만나는 창조의 드라마 가운데 인간의 발견을 노래하고 있다. 이를 위해 땅의 구원과 하늘의 창조를 교차시키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욥기의 하나님 연설에서도 유사한 땅과 하늘의 교차가 드러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땅의 역사와 하늘의 창조섭리가 구체적으로 만나고 있다. 아래의 욥기 38-41장의 본문 구조는 이를 뒷받침한다.

<욥 38-41장의 구조>

|             |                          |                |
|-------------|--------------------------|----------------|
| 38:1-39:30  | 창조세계                     | A-B(땅과 하늘의 질서) |
| 38:1-3      | 인간 욥                     | a              |
| 38:4-6      | 땅의 기초                    | b              |
| 38:7-11     | 하늘과 바다 <sup>30)</sup>    | c              |
| 38:12-15    | 땅의 여명                    | b’             |
| 38:16-17    | 바다의 깊이                   | c’             |
| 38:18-21    | 땅의 너비                    | b”             |
| 38:22-23    | 하늘의 눈 곳간                 | c”             |
| 38:24-30    | 땅과 하늘의 만남 <sup>31)</sup> | d              |
| 38:31-35    | 하늘천체의 운행                 | c”             |
| 38:36-38    | 하늘과 땅의 만남 <sup>32)</sup> | d’             |
| 38:39-39:30 | 창조세계의 동물들 1              | e              |

30) 이곳에서의 바다 역시 인간의 역사와 상관없는 하늘의 영역을 의미한다. 반면에 다음 단락인 12-15절의 “땅의 여명”은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 버린 일”로서 땅의 역사와 관계된다.

31) 땅과 하늘의 독립적 영역이 아닌 하늘과 땅의 요소들이 서로 만나고 있다. 하늘의 “광땅”(אֶרֶץ)이 땅의 “갈”(גֵּל)로, 공중의 “동풍”(רוּחַ)이 “땅”(אֶרֶץ)으로(24); 하늘의 비와 우레와 번개가 땅과 광야에(25-27); 하늘 실체인 비와 이슬과 바다가 땅의 현상인 서리와 얼음으로(28-30).

32) 하늘 원리가 지상의 생물들(예. 수탉)에게 주어지며(36) 하늘에서 비가 내려 지상의 티끌과 흙이 서로 달라붙게 되는 것(37-38)은 하늘과 땅의 만남의 대표적인 예들이다. cf. John E. Hartley, *The Book of Job* (Grand Rapids: Eerdmans, 1988), 501.

|                            |                         |                                |
|----------------------------|-------------------------|--------------------------------|
| 40:1-5                     | 신-인 대화                  | B-A(하늘과 땅의 만남 <sup>33)</sup> ) |
| 40:6-41:26                 | 세상섭리 <sup>34)</sup>     | A(땅의 무질서)                      |
| 40:6-8                     | 인간 욥                    | a'                             |
| 40:9-14                    | 역설적 통치명령 <sup>35)</sup> | d''                            |
| 40:15-41:26 <sup>36)</sup> | 창조세계의 동물들 2             | e'                             |

시편 8편과 욥기 38-41장의 구조적 유사성은 우선적으로, 본문내용의 구성요소들에서 발견된다. 시편에서처럼 욥기에서도 땅과 하늘(바다)이 교차되어 등장하고(b-c; b'-c'; b''-c'' & c''') 하늘과 땅 사이에 서 있는 인간이 등장한다(a & a'). 둘째, 시편 8편 8-9절과 같이 창조세계의 생물들이 욥기에서도 다섯 쌍의 동물들(e)과 한 쌍의 신화적 동물들(e')로써 나열되고 있다.<sup>37)</sup>

33) 하나님의 물음에 욥이 첫 번째로 응답하는 장면으로서 욥의 두 번째 응답이 나오는 42:1-6과 대구가 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현재의 위치에서 중요한 사실은 하늘과 땅이 창조세계에 대한 신-인 대화를 통해서 만나고 있다는 점이다.

34) 하벨(Norman C. Habel)은 욥기에 드러난 폭풍우발언이 지혜자 하나님의 교육의 과정으로 보고 특별히 40-41장의 두 번째 하나님의 연설 부분을 역사 섭리에 관한 단락으로 본다: Norman C. Habel, "In Defense of God the Sage," Leo G. Perdue and W. Clark Gilpin, eds., *The Voice from the Whirlwind: Interpreting the Book of Job* (Nashville: Abingdon, 1992), 21-38. 프레타임프 똑같은 맥락에서 베혜못과 리위야 단 본문을 세상에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정의와 섭리가 중심 주제를 이룬다고 주장 한다: Terence E. Fretheim, *God and World*, 235. 반면에 뉴섬(Carol A. Newsom)은 베혜못과 리위야단을 창조섭리 가운데 나타난 신적인 신비의 혼돈과 두려움의 본성을 완벽하게 구현한 존재로 해석한다: Carol A. Newsom, *The Book of Job: A Concept of Moral Imagination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252.

35) 또 다른 형태의 땅과 하늘의 만남을 묘사한다. 왜냐하면 하늘의 “위엄”(נֹאֲדָה)과 “존귀”(כְּבוֹד) 그리고 “영광”(הוֹד)과 “영화”(הדר)를 가지고 땅에서 악인들을 멸하고 “구원”(יִשׁוּעַ)을 이루는 역설적 통치명령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S. R. Driver, *The Book of Job in the Revised Version* (Oxford: Clarendon, 1906), 121.

36) 한글성경은 41:1-34.

37) 단순한 동물들의 나열뿐만 아니라 실제로 ‘베혜못’(בְּהֵמוֹת)이라는 단어는 양 본문에서 똑같이 등장하며(시 8:8[7]; 욥 40:15), ‘리위야단’(לִוְיָתָן)도 시편 8:9[8]에서 “바닷길로 다니는 것들”(עֲבַר אַרְצוֹת יָמִים)에서 표현되고 있다. cf. Klaus Seybold, *Die Psalmen* (Tübingen: J. C. B. Mohr, 1996), 52.

셋째, 시편 8편 2절에서 “땅”과 “하늘”에 충만한 신적 영광의 임재(A-B)가 10절에서 “땅”에서만(A) 울리고 있다. 마찬가지로, 욥기에서도 첫 번째 하나님의 연설에서 “땅과 하늘의 질서”(A-B)가 언급되었는데 두 번째 폭풍우연설에서는 하늘 영역은 사라지고 “땅의 무질서”(A)의 현실만이 그려지고 있다.<sup>38)</sup> 끝으로, 시편 8편과 욥기 38-41장의 땅과 하늘의 대구조의 반복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늘과 땅이 교차되는 지점에서 인간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전하고 있다. 무엇이 본문 간 이러한 유사성을 가져왔는가? 그것이 바로 시편 8편과 욥기 38-41장 형성에 작용하는 지혜전승의 영향이다.

### 3.2. 문학전승

전통적으로, 시편 8편은 창세기 1장의 제사문서(P) 전승 또는 창세기 2장의 야위스트(J) 전승과의 관련성에서 논의되어왔다.<sup>39)</sup> 그러나 테이트(Marvin E. Tate)는 시편 8편의 형성과 수용이 포로기 이전이나 포로기가 아닌 포로기 이후라고 판단한다.<sup>40)</sup> 그 이유는 2절과 10절에서 야웨 호칭의 접속사가 1인칭 복수 소유격인 “여호와 우리 주여”(יְהוָה אֱלֹהֵינוּ)의 형태인데 시편 8편 이외에는 구약성경에서 느헤미야 10장 30절에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1인칭 복수 소유격의 접속사가 “우리 하나님”으로 등장하는 본문들은 대부분 포로기 이후 시대의 표현이다(느 9:32; 스 9:13; 단 9:9, 15, 17; 시 99:8; 106:47).<sup>41)</sup> 거스텐버거(Erhard S. Gerstenberger) 또한 시편 8편에는 왕정시대 이전이나 왕정시대의 흔적이 없다고 보면서 포로기

38) 이에 대한 설명은 아래의 3.3 본문주제를 참조하라!

39) Artur Weiser, *The Psalms*, 145; 김이곤, “시편 8편에 나타난 신학적 인간학,” 『한신논문집』 3 (1986), 7; Jun Kim, “Psalm 8: An Ecological Reading,” *Korean Journal of Christian Studies* 101 (2016), 19.

40) Marvin E. Tate, “An Exposition of Psalm 8,” *Perspectives in Religious Studies* 28 (2001), 346.

41) Ibid., 346.

이후의 유대교적 회중예배를 배경으로 한다고 지적한다. 한 가지 특이할 만한 사실은 거스텐버거는 시편 8편이 지혜전승과 관련되어 있다고 강조한 점이다. 유대교 형성초기 회중예전의 집례자들이 바로 지혜자적(sapiential) 서기관이나 랍비들이었을 것으로 주장한다.<sup>42)</sup> 이에 대한 근거로 욥기 35장 9-11절의 엘리후의 발언을 들고 있다. 시편 8편의 주요 기능은 제 2성전 시기 불안정하고 적대적인 환경에 처한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창조자를 확신시키는 일이었다는 것이다<sup>43)</sup>. 하지만 적대적인 환경은 인간사회 어느 곳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이기에 거스텐버거의 논의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힘들다. 그럼에도 지혜전승적 요소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타당한 것은 시편 8편처럼 “인간이 무엇인가?”(מַה הָאָדָם; 5a)에 대한 실존적인 질문을 본질적으로 제시하는 구약의 본문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sup>44)</sup> 물론, 고대시대에 신적세계의 배경을 떠난 독립적인 인간에 대한 질문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sup>45)</sup> 인간존재에 대한 근본적 환기는 다분히 자기성찰을 염두에 둔 지혜문학전승의 영향이다. 크라우스는 시편 8편의 지혜 목상이 인간의 상반된 측면 곧 위대성과 미약성의 신비를 묻고 답하게 한다고 보면서 시편 90편 12절과의 연관성을 부각시킨다.<sup>46)</sup> “우리 날 계수함”과 “지혜로운 마음”을 얻으려는 전통적 지혜의 물음이 시편 8편의 인간의 발견으로 응답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크라우스의 해석은 본문에 담긴 창조사적 인간이해로까지 이어지지 않는 못한다. 왜냐하면, 그의 주석은 구속사적 이해로 성급하게 마무리되기 때문이다.<sup>47)</sup>

42) Erhard S. Gerstenberger, *Psalms Part 1*, 71.

43)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욥 35: 10-11; 한글개역개정).

44) 시 144:3; 욥 7:17. cf. 전도서

45) 김이곤, “시편 8편에 나타난 신학적 인간학,” 5.

46) H-J Kraus, *Psalms 1-59*, 179. cf. W. H. Schmidt, “Gott und Mensch in Ps. 8: Form- und überlieferungsgeschichtliche Erwägungen,” *ThZ* 25 (1969), 1-15.

47) H-J Kraus, *Psalms 1-59*, 186. 이런 현상은 대부분의 프로테스탄트 학자들의 주석에서 일관적으로 나타난다: Peter C. Craigie, *Psalms 1-50*, 109-110; Walter Brueggemann,

시편 8편은 인간성찰의 내용뿐만 아니라, 지혜문학의 형식(“wisdom-like style”)<sup>48)</sup>을 통해서도 지혜전승을 반영한다. 첫째, 4[3]절에서 9[8]절에 이르는 피조세계의 나열들이 지혜문학의 백과사전적 지식을 배경으로 한다.<sup>49)</sup> 창조세계에 대한 관찰은 하늘의 달과 별들(4)로 시작하여 그 사이에 인간(5-6) 그리고 아래 땅의 우양과 들짐승(8), 공중의 새와 물고기와 저 깊음의 바다짐승들까지(9) 아우르고 있다. 이에 대한 전형적 지혜문학의 발전이 욥기 38-41장이다: 하늘 천체의 운행(38:7, 31-35), 인간 욥의 존재(38:1-3; 40:6-8; 40:15), 땅의 들짐승(38:39-39:25), 공중의 새(39:26-30), 베헤못과 바다짐승인 리워야단(40:15-41:26[34]).<sup>50)</sup> 양 본문의 유사성을 범주 별로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       | 시편 8   | 욥기 38-41              |
|-------|--------|-----------------------|
| 땅     | 2a, 10 | 38:4-6                |
| 하늘 천체 | 4      | 38:7, 31-35           |
| 인간    | 5-6    | 38:1-3, 40:6-8, 40:15 |
| 들짐승   | 8      | 38:39-39:25, 40:15-24 |
| 새     | 9aα    | 39:26-30              |
| 바다짐승  | 9aβ-9b | 40:25-41:26           |

둘째, 백과사전적 지식과 관련하여 창조세계를 총망라하려는 문학적 의도가 시편 8편에서 두드러진다. 알터는 2[1]절과 10[9]절의 “온 땅”(בְּכָל-הָאָרֶץ) 뿐만 아니라 7[6]절의 “만물”(כָּל)과 8-9[7-8]절의 “모든”

『부르그만의 시편사색』, 65.

48) Marvin E. Tate, “An Exposition of Psalm 8,” 347.

49) Erhard S. Gerstenberger, *Psalms Part 1*, 70.

50) 시편의 또 다른 대표적인 창조시인 104편 또한 유사한 문학구조를 띤다: 하늘(2-4, 19); 땅(5-10); 가축과 들짐승(11, 14, 18, 20-21); 공중의 새(12, 17); 인간(15, 23); 바다짐승(25-26). 이집트 지혜문학의 영향을 포함한 지혜전승의 영향이다. 그러나 104편 내용의 중심은 베스터만이 언급한대로 창조세계 유지를 위한 창조주의 돌봄에 있지만, 8편의 강조는 인간존재에 대한 새로운 발견에 있다. cf. Claus Westermann, *Elements of Old Testament Theology* (Atlanta: John Knox Press, 1982), 86.

동물들(כלל)이 본문의 중심모티프라고 지적한다.<sup>51)</sup> 창조세계의 총체성과 완전성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학적인 장치는 설득을 위한 지혜전송의 수사학적 표현방식의 대표적인 예증이다. 욥기 38-41장 역시 인간지식과 능력을 넘어선 완벽한 우주세계의 구조와 운행이 중심주제이다.<sup>52)</sup> 욥기의 저자는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지상과 땅 아래 심연에 이르기까지 창조세계의 모든 구조와 운행, 피조물들과 특징들을 섭렵하여 묘사한다. 창조세계와 세상 섭리의 통합적 질서를 읽으려 하는 지혜자들의 관점이다.<sup>53)</sup> 셋째, 시편 8편의 의문사 מה의 반복(2, 5, 10)<sup>54)</sup>은 욥기 38-41장의 수사학적인 질문세례와 더불어 지혜문학의 특징을 여실히 보여준다. 와이트브레이(R. N. Whybray)는 수사의문문이 가르침을 목적으로 하는 지혜문학의 주요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을 주목한다.<sup>55)</sup> 흥미로운 사실은 두 개의 본문 공히 감탄문과 의문문들을 통해 정작 주목하는 것은 인간의 정체성이다. 시편 8편은 2절과 10절의 창조주 찬양의 틀 가운데 인간 존재를 묻는 5절을 중앙에 위치시켜 창조세계 속에서 인간의 청지기적 사명을 발견토록 하고 있다.<sup>56)</sup> 욥기 38-41장의 수사학적 물음공세의 의도는 첫 번째 연설과 두 번째 연설의 시작에서 이미 밝히고 있는 바,<sup>57)</sup> 욥 자신의 정체성을 깨우치고자 하는데 있다. 끝으로, 수사학적 문학구조와 관련하여 앞선 “본문구조”에서 관찰하였듯이 땅과 하늘(A-B)의 교차적 대구구조는 지혜자들에게 특징적인 하나님-인간-세계의

51) Robert Alter, *The Art of Biblical Poetry* (Ney York: Basic Books, 1985), 119.

52) Carol A. Newsom, *The Book of Job* (Nashville: Abingdon, 1996), 234-258.

53) Hans-Jürgen Hermission, “Observations on the Creation Theology in Wisdom,” B. W. Anderson, ed., *Creation in the Old Testament*,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4), 130-131.

54) מה-אדיר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2); מה-אנוש “사람이 무엇이기에”(5); מה-אדיר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10)

55) R. N. Whybray, *The Heavenly Counsellor in Isaiah xl 13-14*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1), 20.

56) Marvin E. Tate, “An Exposition of Psalm 8,” 348.

57) מִי זֶה מַחְשִׁיךְ עֵצָה בַּמְּלִין בְּלִידֵּעַת “깨우침이 없는 말들로 섭리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사역; 38:2); הֲרֵב עִם־שְׂרֵי יִסּוּר “땀하기 좋아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사역; 40:2)

구조적 이해를 보여준다.<sup>58)</sup> 티게이(Jeffrey H. Tigay)는 시편 8편에서 하늘의 하나님 영역과 땅의 인간의 영역의 대조는 신과 인간 사이의 간극을 그만큼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한다.<sup>59)</sup> 그러나 시편 8편은 ‘하나님-인간’의 구속사적 관계에 그치지 않는다. ‘하나님-인간-세계’의 관계에서 창조사적 인간발견을 지향한다. 마치 욥이 하나님의 폭풍우연설에서 창조세계의 파노라마에 노출됨으로써 “통치권을 부여 받은 인간의 사명”의 자리로 초대되었듯이 말이다.<sup>60)</sup>

시편 8편과 욥기 38-41장에 작용하는 지혜전승은 창조세계에서 인간의 자리와 기능을 드러내는데 봉사한다. 그렇다면 구속사적 관점과는 다른 창조사적 관점에서 인간의 본성은 무엇일까? 두 본문의 내용을 비교 검토하며 탐구하려 한다.

### 3.3. 본문주제

테이트는 시편 8편의 정경적 구조에 대하여 앞뒤로 3-7편과 11-14편의 개인탄식시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왕권을 강조하는 9-10편을 이끌고 있다고 본다.<sup>61)</sup> 따라서 8편의 주제를 정경적 맥락에서 두 가지로 주장한다. 하나는 창조주요 왕되신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이고,<sup>62)</sup>

58) Leo G. Perdue, *Wisdom and Creation: The Theology of Wisdom Literature*, 34-48.

59) Jeffrey H. Tigay, “What is Man that You Have been Mindful of Him?: On Psalm 8:4-5,” John H. Marks & Robert M. Good, eds., *Love and Death in the Ancient Near East: Essays in Honor of Marvin H. Pope* (Guilford, Connecticut: Four Quarters Publishing Company, 1987), 169.

60) J. Gerald Janzen, “The Place of Job in the History of Israel’s Religion,” Patrick Miller, ed., *Ancient Israel Religion: Essays in Honor of Frank Moore Cross*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7), 529.

61) Marvin E. Tate, “An Exposition of Psalm 8,” 344.

62) 테이트는 구원자로서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의 개념이 시편 3편에서 14편을 관통하는 주제로 본다: 3:4-6, 9; 4:2, 4, 6, 8-9; 5:4, 8, 12; 6:9-11; 7:11, 18, 21; 11:1;

또 다른 하나는 현실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창조질서 내의 인간의 위치와 기능을 발견하고 있다는 것이다.<sup>63)</sup> 테이트의 두 번째 주제는 시편 8편의 시인과 욥기 38-41장의 폭풍우 앞에 선 욥이 동일한 경험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본문의 두 주인공은 각각 원수(시 8:3[2])와 무질서(욥 3:26)로 둘러싸인 고통 가운데 창조세계의 경이로움을 목격하고 있다. 그런데 그들의 경험에 유사성과 상이성이 있다. 양자가 똑같이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 존재의 물음을 제기한다. 반면에, 질문의 동기는 전혀 다르다.

מֶה־אֲנוֹשׁ כִּי־תִזְכְּרוּנוּ  
וּבִן־אָדָם כִּי תִפְקְדֵנוּ

인간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이처럼 기억하시다니요!  
사람의 아들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이처럼 돌보시다니요! (사역; 시 8:5[4])

מֶה־אֲנוֹשׁ כִּי תִגְדְּלֵנוּ וְכִי־תִחְשִׁית אֵלָיו לִבְךָ  
וּתִפְקְדֵנוּ לְבִקְרִים לְרִנְעִים תִּבְחַנֵּנוּ  
כִּמֹּה לֹא־תִשְׁעָה מִמֶּנִּי לֹא־תִרְפֵּנִי עַד־בִּלְעִי רִקִּי

인간이 무엇입니까? 이처럼 그를 크게 여기시고 그에게 마음을 두십니까?  
아침마다 그를 살피시고<sup>64)</sup> 순간마다 그를 시험하십니까?  
언제까지 내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침을 삼키는 동안에도 나를 내버려두지 않으십니까! (사역; 욥 7:17-19)

시편 8편의 존재질문은 완벽한 창조질서 속에 구원을 경험한 은혜의 고백이지만 욥기 7장은 철저한 혼돈과 어둠 속에서의 절규이다. 시편 시인의 동기는 감격이요 깨달음이다. 그러나 욥의 동기는 불평과 항변이다. 물론,

12:5; 13:5; 14:6 등.

63) Marvin E. Tate, “An Exposition of Psalm 8,” 345.

64) 한글개역개정에서는 “권장하다”로 번역하였지만 시편 8편 5절에서 “돌보시다”로 번역된 פָּקַד 동사와 똑같은 동사가 사용되고 있다. cf. “찾아오다”(표준새번역); “visit”(RSV); “inspect”(TNK); “examine”(NIV);

욥의 최종적인 응답과 깨우침은 이후 42장 1-6절에 고백되지만, 하나님의 폭풍우발언을 듣고 있는 현재의 욥의 상황은 여전히 무질서 한가운데 처해 있다. 주지하는 바, 욥기 7장 17절은 시편 8편 5절에 대한 의도적 패러디(parody)이다. 구원사적 돌보심을 드러내는 전통적인 신-인 관계에 대한 근본적 문제제기이다.<sup>65)</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 대한 묘사에서 두 주인공에게 똑같이 등장하는 표현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왕권과 통치권에 관계된 단어들이다.

ותחסרהו מעט מאלהים וכבוד והדר תעטרהו  
תמשילהו במעשי ידיך כל שתה תחת־רגליו

주께서 그를 거의 **하나님처럼**<sup>66)</sup> 지으시고 **영광과 존귀로 왕관 씌워주셨습니다**.  
그에게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그의 **발아래**  
**두셨습니다**. (사역; 시 8:6-7[5-6])

ואם־זרוע כאל לך ובקול כמהו תרעם  
עדה נא נאון וגבה והוד והדר תלבש  
הפץ עברות אפך וראה כל־גאה והשפילהו  
ראה כל־גאה הכניעהו והדרך רשעים תחתם

**하나님과 같은 팔이** 네게 있느냐? **그와 같은 목소리로 천둥을 치겠느냐?**  
**이제 높음과 위엄으로 꾸미고 영화와 존귀**<sup>67)</sup>**를 입으라!**

65) Carol A. Newsom, *The Book of Job: A Concept of Moral Imaginations*, 131. 욥기에서 사용된 패러디의 기능에 대하여는 다음의 책을 참조하라: Catherine Dell, *The Book of Job as Sceptical Literature* (Berlin: de Gruyter, 1991), 109-157.

66) 한글개역개정은 “하나님 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로 번역한다. 이곳에서는 직역 보다는 의역을 택하여 본문에서 인간의 신적 형상과 사명 발견에 대한 강조점을 부각시켰다. cf. Marvin E. Tate, “An Exposition of Psalm 8,” 345.

67) **והדר**은 욥기 본문을 제외하면 구약성서에서 총 다섯 군데에 등장한다. 그 가운데 네 번은 하나님의 속성으로 한 번은 인간 왕에게 주어지는 신적 축복으로 사용된다: Samuel E. Balentine, “‘What are Human Beings, That You Make so Much of Them?’, Divine Disclosure from the Whirlwind: ‘Look at the Behemoth’,” Tod Linafelt & Timothy K. Beal, eds., *God in the Fray: A Tribute to Walter Brueggemann* (Minneapolis: Fortress, 1995), 268.

너는 분노를 참지 말고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추라!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무릎 꿇리고 악인을 그들 자리 아래로<sup>68)</sup> 짓밟아라!

(사역; 욥 40:9-12)

시편 8편 6-7[5-6]절의 본문은 창세기 1장 26절<sup>69)</sup>을 연상케 한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אָדָם)에게 바다와 하늘과 온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הָרָא) 하는 창조명령이다.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형상’과 ‘통치’ 명령이 시편 8편에 “하나님처럼... 영광과 존귀로 왕관 씌워주셨습니다...다스리게 하시고... 발아래 두셨습니다”의 고백으로 이어지게 하였다. 그런데 유사한 단어들과 모티프가 욥기 40장에서 여전히 등장한다. “하나님과 같은 팔로...그와 같은 목소리로...높음과 위엄으로 꾸미고 영화와 존귀를 입으라... 모든 (악인들을) 그들 자리 아래로 짓밟아라.” 시편과 욥기의 본문은 똑같이 창세기 1장을 염두에 둔 창조사적 맥락에 놓여있다. 주된 내용은 ‘하나님과 같은 왕권’이며 ‘피조세계에 대한 통치권’이다. 비록 욥기 40장의 하나님의 명령은 역설적인 풍자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인간존재에 대한 욥의 패러디(7:17)를 폭풍우연설에서 하나님의 패러디(40:9-14)로 수사학적인 대구를 이루도록 배치했다. 그리고 그 기능은 단순한 풍자조의 비꼬기(twist) 보다는 재확인(reaffirming)이다. אֱלֹהֵינוּ에 대한 시편의 창조질서 내에서의 인간발견이 욥기 7장에서는 무질서 가운데 도입되었다. 얼핏 창조질서로부터 이탈된 인간 존재의 상실로 비쳐지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창조질서 내의 인간 본래의 위치 회복을 갈구하는 고통스런 인간의 자기 확인의 의미가 강하다.<sup>70)</sup> 시편의 탄식시에서 “하나님 일식”(시 10:11; 13:1; 27:9; 30:7;

68) 시편 8:7에서와 똑같은 תַּחַת 전치사가 사용되고 있다.

69)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한글개역개정).

70) Will Kynes, “Beat Your Parodies into Swords, and Your Parodied Books into Spears: A New Paradigm for Parody in the Hebrew Bible,” *Biblical Interpretation* 19 (2011), 305-306.

44:24; 88:14; 143:7 등) 현상으로부터 하나님 임재의 돌아오심(시 17:15; 31:16; 42:5; 67:1; 80:3, 7, 19 등)을 바라듯, 인간 실존에서 인간 발견을 역설적으로 구한다. 이러한 수사학적 의도가 욥기 40장의 하나님의 풍자적인 발언에 이어진다. 도전적인 발언을 통해 도리어 인간 본래의 창조사적 위치를 확인케 한다.<sup>71)</sup> 지금 욥은 무질서에 함몰되어 불평과 원망으로 일관하는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 그 무질서의 땅에서 하늘의 창조질서를 일구어야 하는 신적 대리자로 새롭게 초청받고 있는 것이다.<sup>72)</sup>

앞서 “분문구조”에서 살펴본 대로, 땅과 하늘이 번갈아 나오는 구조는 대구의 반복을 통해 하늘과 땅이 간격이 좁혀져 마침내 하나로 수렴되는 지점에 이르게 한다. 그 창조구조의 중심점에서 발견된 인간은 구원과 창조를 동시에 경험한다. 창조질서의 회복이 그에게는 구원이며 청지기적 사명의 수행이 그에게는 창조이다. 이제 인간 존재는 하늘과 땅 사이에 위치하며 하나님의 창조사명을 감당할 때 비로소 창조세계의 중심에 서게 된다. 크라우스의 표현에 의하면 인간은 인생살이의 현상적 자아(exemplary I)에서 본질적 자아(archetypal I)의 사명자로 서게 된다.<sup>73)</sup> 더군다나 시편 8편과 욥기 38-41장의 본문구조가 전반부의 “땅과 하늘”(A-B)의 창조구조로 시작했다가(시 8:2; 욥 38:1-39:30) 후반부의 “땅”(A)의 실존적 현실에서 마무리되는(시 8:10; 욥 40:6-41:26)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질서가 이제 인간의 땅에서 구현되어야(incarnate) 함을 가리킨다. 시편 회중의 공동찬양이 10절에서 “땅”에서만 울려 퍼지는 것은 창조사적 인간의 구원경험이 이미 땅의 지평선 상에서 하늘의 창조경험과 만나고 있음을 의미한다.<sup>74)</sup> 욥기의 하나님 응답이

71) Kinnier Wilson, “A Return to the Problem of Behemoth and Leviathan,” VT XXV (1975), 5.

72)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욥 38:3; 40:7)는 예언자들에게 사명을 부여할 때 사용되는 관용문구이다: 왕상 18:46; 왕하 1:8; 4:29; 9:1; 렘 1:17; 나 2:1 등.

73) 크라우스의 표현에 의하면 인간은 인생살이의 현상적 자아(exemplary I)에서 본질적 자아(archetypal I)의 사명자로 서게 된다: H-J Kraus, *Psalms* 1-59, 180.

74) 크라우스는 10절에서 “땅”에서의 위엄찬 찬양되는 이유는 바우만(E. Baumann)의 견해를 따라, 3-9[2-8]의 지상세계에 대한 묘사의 당연한 귀결로 보고 있다: H-J Kraus, *Psalms* 1-59, 185. 또한 김정우는 2절에서 ‘땅’이 먼저 나오고 ‘하늘’이 나중에 나오는 현상을

첫 번째 폭풍우연설에서 “땅과 하늘의 질서”를 말하다가 두 번째 연설에서 배혜못과 리위야단으로 상징되는 “땅의 무질서”로 마무리 되는 이유는 사명 감당의 현장인 현실적 실체와의 만남을 의미한다.

#### 4. 창조와 구원의 관계성

폰 라드는 소위 이스라엘의 “소역사 신조”(신 26:5-9)를 비롯한 역사적 신앙고백(신 6:20-24; 수 24:2-13)에서 창조개념이 등장하지 않음을 보고 창조사상의 후대 발전을 주장한다. 그러나 베스터만은 창세기 1장의 창조는 출애굽기의 구속역사의 서론으로 후대에 도입된 것이 아니라 그 보다도 훨씬 이전의 사건으로부터 전승되어진 결과로 본다.<sup>75)</sup> 창조와 구속은 독립된 전승의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란데스(George M. Landes)에 의하면 창조와 구속이 독립적으로 언급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행과 충만한 창조에는 그 무엇으로부터 구속받아야 할 요소가 없기 때문이라고 타당하게 주장한다.<sup>76)</sup> 이스라엘 신앙의 창조이해는 앞서 주장되었듯이 태고의 바다를 극복해야 할 싸움의 대상으로 보는 것(*Chaoskampf*)이 아니라 도리어 모든 피조물들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모태로 받아들인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여 그것을 나눌 때에 지구가 탄생했다. 즉...주변의 물들이 모이고 질서가 생겨 바다가 되고 빈 공간이 식물들과 동물들, 인간으로 채워졌다.”<sup>77)</sup> 그러나 앞선 학자들의 창조신앙 회복에 대한 관심이 구속사와 독립된 전승의 발견에

---

지적하면서 2절 상반절과 하반절로 나눈 뒤 10절에서의 ‘온 땅’을 2절 상반절의 ‘온 땅’과 연결시키고 있다: 김정우, 『시편주석 I』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2011), 281. 두 학자의 견해는 각기 타당한 논지를 지니고 있으나 시편 8편 전체에 흐르는 “땅-하늘(A-B)”의 교차구조를 간과한 측면이 있다(위 3.1.의 “시편 8편의 구조 II”를 참조하라!).

75) Claus Westermann, *Genesis 1-11* (Minneapolis: Augsburg, 1984), 64.

76) George M. Landes, “Creation and Liberation,” B. W. Anderson, ed., *Creation in the Old Testament*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4), 138.

77) Ibid., 138.

는 공헌했으나 여전히 창조와 구원의 연결에는 기여하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비교연구를 통한 시편과 욥기에서의 인간의 발견은 통합적으로 창조에 나타난 구원신앙을 제시한다. 그것은 하늘의 창조질서를 땅의 무질서 가운데 회복하고 갱신하는 인간 대리자를 통해서이다.

시편 8편과 욥기 38-41장의 본문은 창조세계를 “있는 그대로” 그린다. 인간에 대한 어떤 죄성의 고발도 없으며 인간사의 고통의 원인에 대한 교리적 설명도 없다. 단지, 창조주의 돌봄과 위임에 대한 인간의 발견(시 8)과 창조세계의 조화와 아름다움에 대한 인간의 깨달음(욥 38-41)이 묘사될 뿐이다. 기존의 구속사사적 인간이해는 하늘과 땅의 차이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넘을 수 없는 간극에 집중해 왔다. 그러나 시편의 찬양과 욥기의 하나님 발언은 땅과 하늘의 만남을 강조한다. 그리고 그 만남의 중재자로 인간을 주목한다. 시편에서의 인간은 창조질서의 충만함 가운데 “그 하늘”(הַשָּׁמַיִם)의 질서를 “그 땅”(הָאָרֶץ)에 이루어야 할 청지기적 사명<sup>78)</sup>을 받는다. 욥기의 인간은 창조질서의 깨달음 가운데 “섭리를 어둡게 하는 자”(מַחֲשִׁיךְ עֵצָה; 38:2), “탓하는 자”(יֹסֵר; 40:2)가 고통의 현실을 직시하고 무질서를 다스리는 사명<sup>79)</sup>을 부여받게 된다. 이러한 창조사적 인간이해는 지혜문학의 영향이다. 왜냐하면 지혜자들은 하나님의 창조세계에 숨어있는 질서에 관심하기 때문이다.<sup>80)</sup> 그들의 경험론적 입장이 현실세계의 삶을 있는 그대로 “듣고 보게”(욥 42:5) 한다. 따라서 “원수들과 보복자들”(시 8:3[2])로 둘러싸인 상황과 무질서로 이해되는 “베혜못과 리위야단”(욥 40:15-41:26[34])의 존재 앞에서 고통의 상황 너머의 창조세계의 능력과 아름다움에 대한 발견과 의로운 사명자의 깨달음이 있는 것이다.<sup>81)</sup> 이곳에 창조신앙의 구원경험이

78) שָׁחָה תַּחְתִּירָגְלִי יִדְּךָ כָּל שֵׁחָה תַּחְתִּירָגְלִי תַּחֲשִׁילֶהוּ בַּמַּעֲשֵׂי יְיָ כִּי כָּל שֵׁחָה תַּחְתִּירָגְלִי תַּחֲשִׁילֶהוּ בַּמַּעֲשֵׂי יְיָ 그에게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그의 발아래 두셨습니다 (사역; 8:7).

79) רָאָה כָּל־נֶאֱדָה הַכִּנְיָעָהוּ וְהָדָךְ רָשָׁעִים תַּחֲתָם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무릎 꿇리고 악인을 그들 자리 아래로 짓밟아라 (사역; 40:12).

80) James L. Crenshaw, “Prolegomenon,” James L. Crenshaw, ed., *Studies in Ancient Israelite Wisdom* (New York: KTAV Publishing House, 1976), 33-34.

81) 베혜못과 리위야단 본문의 해석학적 의미, 즉 ‘혼돈과의 싸움’이 아닌 ‘지혜자적 깨달음’에

있다. 슈미트의 표현을 빌면, 창조세계의 질서 곧 의로움(*תְּקֵנָה*)이 회복되는 경험이다. 이는 단지, 율법서와 예언자들의 사회적, 역사적 정의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창조세계 전체의 의로움과 구원을 향하여 열려있다.<sup>82)</sup>

이제까지 비교연구한 시편 8편과 욥기 38-41장은 창조세계의 어떠한 결핍이나 악성에 관심하지 않는다. 도리어 창조질서의 좋음과 아름다움에 대한 송영(*doxology*)으로 가득 차 있다. 구속사적 인간이해의 위험은 세계 내의 죄성에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의 창조와 자유를 인간교리의 울타리 내에 가두는 일이다. 예를 들면, 유대교 지혜문헌인 시락서에서는 존재의 “짝” 구조(*in pairs*)를 철학적으로 불가피하게 도입하였고 신약시대의 묵시문학적 세계관은 이원론적 사상 구조로 인한 현실세계의 부정을 종용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구속신앙이 의도하지 않게 현실로부터 추상적인 세계로의 도피를 부추기게 된 것이다. 창조신앙의 회복이 강조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인위적인 인간 사상과 종교적 교리의 체계가 아니라 실제적인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직면하여 창조세계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좋으심과 의로움을 듣고 보는 일이 신앙의 정수이다. 그 때에 무질서를 창조질서로, 불의를 의로, 고통을 찬양으로 변화시키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위치와 사명이 발견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창조신앙이 고대 이스라엘 신앙의 근본핵심 (“the most fundamental”)이라고 강조한 크니림(Rolf Knierim)의 주장은 타당하다: “야웨가 인간과 인간역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창조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다. 야웨가 창조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과 인간역사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sup>83)</sup>

---

대한 상술은 다음의 자료들을 참조하라: 안근조, “내가 너를 만든 것처럼: 창조와 구원의 신앙,” 안근조 편, 『지혜말씀으로 읽는 욥기』 (서울: 감은사, 2020), 281-359; 안근조, “욥과 베혜못 그리고 리위야단: 하나님의 두 번째 응답(욥 40-41)에 대한 수사비평적 읽기,” 『신학사상』 126 (2004), 57-78. cf. 이에 반해 여전히 베혜못과 리위야단을 ‘혼돈과의 싸움’의 전승사적 맥락에서 창조주의 세계질서 유지를 증명하는 야웨의 논박으로 해석하는 입장은 다음의 자료를 참조하라: 하경택, 『설교자를 위한 욥기 연구: 질문과 응답으로서의 욥기 연구』 (서울: 한국성서학연구소, 2006), 255-262.

82) H. H. Schmid, “Creation, Righteousness, and Salvation,” 107-108.

## 5. 나가는 말

이제까지의 논의는 구약성서의 창조신앙을 새롭게 조명하여 인간 구원의 본질적 의미를 창조신학적 맥락에서 밝히기 위한 하나의 시도였다. 이를 위해 기존 역사비평의 창조 개념에 대한 외래적, 보조적, 도구적 전제들의 해석학적 문제들을 지적하고 시편 8편과 욥기 38-41장의 문학적 구조와 전개에 집중한 해석을 비교문학을 통하여 진행했다. 첫째, 본문구조에서는 시편 8편과 욥기 38-41장 공히 땅-하늘이 교차되는 대구구조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발견했다. 둘째, 문학전승 연구에서는 내용적으로나 형식적으로나 인간 존재의 위치와 기능을 발견토록 하는 지혜전승의 영향이 동일한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고찰하였다. 셋째, 본문주제에서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 받은 인간의 창조사명이 하늘의 창조질서를 무질서의 현실에 실행하는 의로운 치리에 있음을 도출할 수 있었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를 통하여 창조신학이 구약성서 신앙의 근간임을 밝힐 수 있었다. 구약성서의 구원신앙은 창조질서의 회복이라는 지평에서 비로소 이해된다. 이스라엘의 지혜문학은 경험론적으로 현실의 무질서를 직시하게 한다. 고통의 현장에서 창조질서에 대한 이해를 날카롭게 한다. 마침내 창조주와의 만남을 통해 하늘과 땅 사이에 신적-인간적 실존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 구원이 성취된다. 하늘 뜻으로 이 땅에 성육하여 구원을 이룬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적 구원 성취가 시편과 욥기에서 울리고 있다.

### <주요어>

창조, 구원, 시 8편, 욥 38-41장, 지혜전승

### <Key Words>

Creation, Salvation, Psalm 8, Job 38-41, Wisdom Tradition

\* 접수일 2021년 8월 9일, 수정일 2021년 9월 4일, 게재확정일 2021년 9월 28일

## 참고문헌

- 권지성, 『특강 욥기: 고통, 정의, 아름다움에 관한 신의 드라마』 서울: IVP, 2019.
- 김이곤, “시편 8편에 나타난 신학적 인간학,” 『한신논문집』 3 (1986), 3-22.
- 김정우, 『시편주석 I』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2011.
- 노세영, “창조와 구속의 관계성에 대한 이해,” 『구약논단』 11 (2001), 7-25.
- 안근조, 『지혜말씀으로 읽는 욥기』(개정증보판) 서울: 감은사, 2020.
- 안근조, “욥과 베혜못 그리고 리위야단: 하나님의 두 번째 응답(욥 40-41)에 대한 수사비평적 읽기,” 『신학사상』 126 (2004), 57-78.
- 왕대일, “‘하늘을 다스리는 질서가 무엇인지 아느냐?’(욥 38:33a): 창세기 창조신앙에 대한 지혜문학의 반성: 욥기 38-41장을 중심으로,” 『Canon&Culture』 7 (2013), 103-129.
- 하경택, 『설교자를 위한 욥기 연구: 질문과 응답으로서의 욥기 연구』 서울: 한국성서학연구소, 2006.
- Alter, Robert, *The Art of Biblical Poetry*, New York: Basic Books, 1985.
- \_\_\_\_\_, *The Book of Psalms: A Translation with Commentary*,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2007.
- Balentine, Samuel E., “‘What are Human Beings, That You Make so Much of Them?’, Divine Disclosure from the Whirlwind: ‘Look at the Behemoth,’” Tod Linafelt & Timothy K. Beal, eds., *God in the Fray: A Tribute to Walter Brueggemann*, Minneapolis: Fortress, 1995, 259-278.
- Barr, James, *Biblical Faith and Natural Theology*, Oxford: Clarendon, 1993.
- Brown, William P., *The Ethos of the Cosmos: The Genesis of Moral Imagination in the Bible*, Grand Rapids: Eerdmans, 1999.
- Brueggemann, Walter, *Theology of the Old Testament: Testimony, Dispute, Advocacy*, Minneapolis: Fortrress, 1997.
- \_\_\_\_\_, 『부르그만의 시편사색』, 조호진 역, 서울: 솔로몬, 2007.

- Clayton, Philip, "Emerging God: Theology for a Complex Universe," *The Christian Century* 121 (2004), 26-30.
- Clines, D. J. A., *Job*, Nashville: Thomas Nelson, 1989.
- Craigie, Peter C., *Psalms 1-50*, Waco: Word, 1983.
- Crenshaw, James L., "Prolegomenon," James L. Crenshaw, ed., *Studies in Ancient Israelite Wisdom*, New York: KTAV Publishing House, 1976, 1-60.
- Dell, Katharine J., *The Book of Job as Sceptical Literature*, Berlin: Gruyter, 1991.
- Driver, S. R., *The Book of Job in the Revised Version*, Oxford: Clarendon, 1906.
- Fretheim, Terence E., *God and World in the Old Testament: A Relational Theology of Creation*, Nashville: Abingdon, 2005.
- Gerstenberger, Erhard S., *Psalms Part 1 with an Introduction to Cultic Poetry*, Grand Rapids: Eerdmans, 1988.
- Habel, Norman C., "In Defense of God the Sage," Leo G. Perdue and W. Clark Gilpin, eds., *The Voice from the Whirlwind: Interpreting the Book of Job*, Nashville: Abingdon, 1992, 21-38.
- \_\_\_\_\_, *Readings from the Perspective of Earth*,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2000.
- Hartley, John E., *The Book of Job*, Grand Rapids: Eerdmans, 1988.
- Hermisson, Hans-Jürgen, "Observations on the Creation Theology in Wisdom," B. W. Anderson, ed., *Creation in the Old Testament*,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4, 118-134.
- Janzen, J. Gerald, "The Place of Job in the History of Israel's Religion," Patrick Miller, ed., *Ancient Israel Religion: Essays in Honor of Frank Moore Cross*,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7.
- Kim, Jun, "Psalm 8: An Ecological Reading," *Korean Journal of Christian Studies* 101 (2016), 11-30.
- Knierim, Rolf, "The Task of Old Testament Theology," *HBT* 6 (1984), 25-57.
- \_\_\_\_\_, *The Task of Old Testament Theology: Substance, Method, and*

- Cases*, Grand Rapids: Eermans, 1995.
- Kraus, H.-J., *Psalms 1-59: A Commentary*. tr., Hilton C. Oswald, Minneapolis: Augsburg Publishing House, 1988.
- Kynes, Will, "Beat Your Parodies into Swords, and Your Parodied Books into Spears: A New Paradigm for Parody in the Hebrew Bible," *Biblical Interpretation* 19 (2011), 276-310.
- Landes, Geprge M. Landes, "Creation and Liberation," B. W. Anderson, ed., *Creation in the Old Testament*,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4, 135-151.
- McCann, J. Clinton, *The Book of Psalms*, Nashville: Abingdon, 1996.
- McCarthy, Dennis J., "'Creation' Motifs in Ancient Hebrew Poetry," B. W. Anderson, ed., *Creation in the Old Testament*,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4, 74-89.
- Newsom, Carol A., *The Book of Job*, Nashville: Abingdon, 1996.
- \_\_\_\_\_, *The Book of Job: A Concept of Moral Imagination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 Ollenberger, Ben C., "Isaiah's Creation Theology," *ExAud* 3 (1987), 54-71.
- Paas, Stefan, *Creation and Judgment: Creation Texts in Some Eighth Century Prophets*. Leiden: Brill, 2003.
- Perdue, Leo G., *Wisdom and Creation: The Theology of Wisdom Literature*, Nashville: Abingdon, 1994.
- Rad, Gerhard von, "The Form-Critical Problem of the Hexateuch," *The Problem of the Hexateuch and Other Essays*, Oliver & Boyd, 1966, 1-78.
- \_\_\_\_\_, "The Theological Problem of the Old Testament Doctrine of Creation," *The Problem of the Hexateuch and Other Essays*, Oliver & Boyd, 1966, 131-143.
- Schmid, H. H., "Creation, Righteousness, and Salvation," B. W. Anderson, ed., *Creation in the Old Testament*, Philadelphia:

- Fortress Press, 1984, 102-117.
- Schmidt, W. H., "Gott und Mensch in Ps. 8: Form- und überlieferungsgeschichtliche Erwägungen," *ThZ* 25 (1969), 1-15.
- Seybold, Klaus, *Die Psalmen*, Tübingen: J. C. B. Mohr, 1996.
- Tate, Marvin E., "An Exposition of Psalm 8," *Perspectives in Religious Studies* 28 (2001), 343-359.
- Tigay, Jeffrey H., "What is Man that You Have been Mindful of Him?: On Psalm 8:4-5," John H. Marks & Robert M. Good, eds., *Love and Death in the Ancient Near East: Essays in Honor of Marvin H. Pope*, Guilford, Connecticut: Four Quarters Publishing Company, 1987, 169-171.
- Van Leeuwen, R. C., "Psalm 8.5 and Job 7.17-18: A Mistaken Scholarly Commonplace?," P. M. Michèle Daviau, John W. Wevers & Michael Weigel, eds., *The World of Aramaeans, I: Biblical Studies in Honor of Paul-Eugène Dion*,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2001, 205-215.
- Watson, Francis, *Text and Truth: Redefining Biblical Theology*, Grand Rapids: Eerdmans, 1997.
- Weiser, Artur, *The Psalms: A Commentary*,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2.
- Westermann, Claus, *Elements of Old Testament Theology* (Atlanta: John Knox Press, 1982.
- \_\_\_\_\_, "Biblical Reflection on Creator-Creation," B. W. Anderson, ed., *Creation in the Old Testament*,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4, 90-101.
- \_\_\_\_\_, *Genesis 1-11*, Minneapolis: Augsburg, 1984,
- Whybray, R. N., *The Heavenly Counsellor in Isaiah xl 13-14*,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1.
- Wilson, Kinnier, "A Return to the Problem of Behemoth and Leviathan," *VT* XXV (1975), 1-14.

## <초록>

# 창조에 나타난 구원신앙

- 시편 8편과 욥기 38-41장의 비교연구 -

안근조

(호서대학교)

본 논문의 목적은 구약성서에 나타난 창조와 구원의 관계성을 규명하러는데 있다. 기존의 “구속사”(Heilsgeschichte) 중심의 종속적 창조론의 신학적 한계를 극복하고 인간 구원 경험의 창조사적 의미를 탐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창조세계에서 구원을 경험하는 대표적인 두 본문인 시편 8편과 욥기 38-41장을 비교연구하면서 창조와 구원의 의미가 각 본문에서 어떻게 상호 수렴되고 있는가를 밝힌다. 먼저, 두 본문의 구조는 땅과 하늘의 교차적 반복구조를 통해서 하늘과 땅이 만나는 지점에 집중되어 있다. 그곳에서 인간에 대한 구원경험과 창조경험이 만나고 있다. 둘째, “인간이 무엇인가”(מינוּהוּמָנוּס)의 물음에 대한 깨달음이 지혜전승의 관점에서 묘사된다. 본문 내용뿐만 문학형식에 있어서도 창조세계의 구조와 동물들에 대한 백과사전적 지식, 감탄문과 수사학적 의문문을 통한 문학적 모티프들의 사용은 지혜자들의 손길을 드러낸다. 자연스레 인간에 대한 이해는 두 본문 공히 ‘하나님-인간’의 구속사에서 ‘하나님-인간-세계’의 창조사적 지평으로 확대된다. 셋째, 시편 8편과 욥기 38-41장이 전하는 구원경험의 내용은 창조질서의 회복경험이다. 고통과 무질서의 땅에서 창조질서의 하늘을 만나는 경험이다. 그 경험의 핵심에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 받은 인간 존재의 발견과 창조사명의 깨달음이 있다. 궁극적으로, 두 본문을 통하여 구약성서의 인간이해는 더 이상 수동적 구원론에 머물지 않고 적극적 창조론으로 고양된다. 더 나아가 구약성서신학의 창조와 구원의 관계성은 구원의 서론으로서의 종속적 창조

론이 아니라 구원의 근간으로서의 통합적 창조론으로 수정되기에 이른다. 본 연구를 통하여 고대 이스라엘의 창조신앙이 외래적이거나 보조적인 것이 아니라 고유한 고백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교리적 또는 율법적인 차원에 머물던 구원신앙의 장을 실제적이고 경험적인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었다.

<Abstract>

## A Relationship between Creation and Salvation in Psalm 8 and Job 38-41 through a Comparative Study

Keun Jo Ahn  
(Hoseo University)

This paper aims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creation and salvation in the Old Testament theology. Raising some limitations of the redemption-history (*Heilsgeschichte*), this study attempts to discover the integral meaning of salvation in the perspective of creation-history(*Schöpfungsgeschichte*). Psalm 8 and Job 38-41 are comparatively studied in order to investigate how the concepts of creation and salvation are interrelated in each text. The results are as follow. Most of all, the two texts betray characteristic structures in which repetitive crossing elements of earth and heavens eventually focus on a converging point. It is the point that salvation and creation encounter in human experience. Second, the sapiential interest in “what is human being” is pursued in the context of wisdom tradition. Not only the contents but also the literary types of each text reflect the wisdom influence: encyclopedic scientific description of heavens and celestial body, enumeration of animals, expression of wonders, rhetorical questions. Accordingly, understanding of human being does not remain in doctrinal dimension of ‘God-human’ relationship but extends to empirical dimension of ‘God-human-world’ relationship. Third, human redemption in Psalm 8 and Job 38-41 signifies a restoration of creation order. Human beings experience their salvation when they find the order of heavens in the midst of sufferings on the earth. The core experience of redemption is to find the image of God in every human

being and to realize their mission as a caretaker of the creation order. In conclusion, the two texts reveal that human beings enhance their experience of salvation from receiving divine grace to participating in divine order of creation. This finding opens to a new direc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reation and salvation. Creation is not only an introduction or a subsidiary to redemption history but the most fundamental center in the fulfillment of divine salvation. This paper contributes to recovering the concept of creation as essential in Israelite faith by liberating the concept of salvation from doctrinal-legalistic understanding to real-incarnate experience of divine order.